

창조적신기술

영화상카메라

SUNEMOO

별을보다

별을 쏘다 ★

2019 SUMMER vol. 020

발행일 | 2019년 7월 26일 (통권 제20호)

발행인 | 이명근 사보기자, 강승호, 김도형, 김태우, 김태훈,
남창식, 문해준, 박노실, 박은혜, 신민환, 이수승, 이승욱, 정영화,
최성욱, 최수영 (가나다순)

발행처 | 성우하이텍 www.swhitech.com

(인사노무팀 Tel. 070-7477-6233)

기획 및 디자인 | 미디어줌 (Tel. 051-623-1906)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성우하이텍 홍보 블로그로 연결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성우하이텍 홍보동영상을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성우하이텍 사가(社歌)를
만나보세요.

04 Issue&News

08 New SUNGWOO

쉽 없는 혁신으로 만들어가는 “창조적 신기술” - 성우혁신사관학교 2기 수료
선진기업 현장에서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고민하다 - 혁신학교 3기생 일본 우수기업 방문기
위기 극복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잡다 - 가라쿠리 개선

16 Education

활발한 소통이 '창조적 신기술'의 밑거름 - 2019 노사화합 워크숍
뜨내 “살아있는” 성우의 속살을 만나다 - 신입사원 현장실습

22 Challenge SUNGWOO

김순근 사원의 생애 첫 마라톤 참가기

26 Field Sketch

성우의 봄은 당신의 여름보다 뜨겁다!
제16회 성우하이텍 회장배 족구, 탁구, 풋살대회



34



42



46



54

30 Photo Essay

"성우인들에게 추천합니다" 내가 다녀온 최고 여행지

34 New Face

한줄 고전에 담긴 교훈으로 돌아보다 - 대표이사님과 함께한 2019 공채사원 등산행사
'성우'로 통하였습니까? - 2019 성우 후견인제도

42 SUNGWOO People

기분 좋은 START! 성우하이텍 축구동호회 'FC PPM'

46 Going 부안 변산에 반하다

52 Health Life 새하얗게 불태웠어... 번아웃증후군

54 Social Contribution 공감을 통해 편견 허물어요! - 해피스쿨 목욕 봉사

57 Event 페이퍼토이로 만드는 슈퍼 히어로 III

(주)성우하이텍, GM 2018년 올해의 협력사상 수상



(주)성우하이텍이 GM으로부터 ‘2018년 올해의 협력사상’을 수상하였다. 5월 15일, 미국 디트로이트 주 매리엇 르네상스 센터(Detroit Marriott Renaissance Center)에서 열린 GM 2018 SOY(Supplier Of the Year) 행사에서 (주)성우하이텍은 북미 차종 개발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었고, 우수한 품질과 두터운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이 상을 수상하였다.

(주)성우하이텍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연속으로 수상한 바 있고, 지난 2017년에 이어 2018년까지 2년 연속 수상으로 GM과의 돈독한 유대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주)성우하이텍은 고객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

(주)아산성우하이텍 노동조합 아산시 노사평화상 수상



5월 10일, “노동절기념 제8회 아산시 노사평화상 시상식”에서 (주)아산성우하이텍 노동조합이 노동단체 부문을 수상하였다. 노사평화상은 노사화합으로 생산성 향상과 노사평화의 정착에 기여한 노동단체와 근로자 및 기업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주)아산성우하이텍 노동조합은 노사 간 화합 및 협력적 관계유지를 통한 무분규 사업장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한 공을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였다. 더불어 한국노총 아산지부 주최 노동절기념 문화 한마당 공로상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표창부분에서 (주)아산성우하이텍 노동조합 이우일 사무장이 수상하여 기쁨을 더하였다.

(주)아산성우하이텍은 앞으로도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힘써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를 기본원칙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창주성우기차부건유한공사, 북경현대 우수품질상 수상



3월 4~8일, 중국타이완 원산호텔에서 열린 북경현대 협력사 세미나에서 창주성우기차부건유한공사(이하 '창주성우') 총경리 김종범 상무가 우수품질상을 수상하였다.

“힘을 모아 혁신하고, 합심하여 상생하자”를 슬로건으로 북경현대에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총 240여 명이 참석하여 만찬을 겸한 수상식을 진행하였고, 현지문화체험도 함께하며 협력사 간의 우의를 다졌다. 창주성우는 2015년 4월에 설립하였으며, 탁월한 기술력과 우수한 품질로 고객사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이 가능했다.

제38기 주주총회 개최



3월 29일 서창공장 대강당에서 ㈜성우하이텍 제38기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문용 대표이사 사장은 인사말에서 “수년간 이어진 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노사의 일치단결된 노력과 주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세계적인 수준의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중국 중경 및 창주 생산 공장의 본격적인 양산과 인도 신 공장 투자 확대로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며 2018년의 성과를 발표하였다. 이어 “세계 경제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와 각국의 보호무역 확산, 미래 기술 혁신의 가속화로 올해도 경영환경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이어가기 위해 창조적인 신기술 개발 및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제17회 성우하이텍배 KNN 환경마라톤대회 개최



3월 17일 일요일 아침, '제17회 성우하이텍배 KNN 환경마라톤대회'가 해운대 BEXCO에서 열렸다.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기념하여 매년 개최되는 성우하이텍배 KNN 환경마라톤대회는 물의 소중함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런 부산, 그린 러너 (RUN BUSAN, GREEN RUNNER)가 되자"를 캐치프레이즈로 하여 전국 각지에서 모인 마라토너들이 수영강 일대를 수놓았다.

성우하이텍, 아산성우하이텍 가족 천여 명도 참석하여 상쾌한 봄바람을 맞으며 일요일 아침을 열었다. APEC 나루공원을 지나 민락수변로, 광안리 해수욕장을 거쳐 다시 BEXCO로 돌아온 성우가족들은 뷔페 행사를 통하여 봄날의 추억을 더했다.

» 관련 기사: 22p

제16회 성우하이텍 회장배 족구, 탁구, 풋살대회 성료



5월 24일, 서창공장 풋살 경기장에서 이명근 회장의 시축으로 제16회 성우하이텍 회장배 족구, 탁구, 풋살대회 본선대회의 막이 올랐다. 이날은 4월 8일 첫 경기를 시작으로 40여 일간의 예선을 거친 본선 진출팀들이 기량을 뽐내는 날이었다.

모든 경기가 손에 땀을 쥐게 하였다. 이명근 회장의 개회사 "승부는 승부다"를 참가자들이 모두 복창하며 시작한 경기들은 어느 누구 하나 쉽게 물러섬이 없고, 일찍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 역전에 역전을 거듭한 경기가 계속되어서 보는 이들 역시 긴장감을 끝까지 붙잡았다.

» 관련 기사: 26p

2019년 대표이사와 함께하는 신입사원 등반대회



5월 10일, 이문용 대표이사 사장과 성우하이텍 공채 신입사원들은 7시간에 걸쳐 간월산과 신불산 일대를 등반하였다. 배내고개 출발점으로부터 간월산, 신불산을 거쳐 진행된 이번 등반대회에서는 탁 트인 하늘 아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무사히 등반을 완주했다.

“우리가 성우의 미래다!”라는 현수막에 적힌 것처럼 신입사원들이 마음껏 포부와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성우하이텍이 될 것이다.

» 관련 기사: 34p

아산성우하이텍 족구단 고용노동부장관기 전국 족구대회 '우승'



6월 29일 전주 완산체육공원에서 제11회 고용노동부장관기 전국족구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한민국족구협회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직장부, 최강부, 일반부 등 전국에서 약 1,200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기를 펼쳤다.

아산성우하이텍 족구동호회는 전국 직장부에서 본선에 진출한 8개 팀과 토너먼트를 거쳐 전승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특히 역수같이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전 경기 2:0의 세트스코어로 결승에 진출하였고, 결승전에서 만난 한국타이어와 1:1로 맞이한 3세트에서 19:18이라는 드라마틱한 스코어로 전국 우승을 이루어냈다. 최우수감독상(조립2반 정병채 반장)과 최우수선수상(자재지원반 김기용 기사)을 거머쥐어 기쁨을 더했다.



쉽 없는 혁신으로 만들어가는 “창조적 신기술”

성우혁신사관학교 2기 수료

3월 29일 성우혁신사관학교(SHiOTS, Sungwoo Hitech Innovation Officer Training School)
2기생들의 수료식이 열렸다. 현장을 누비던 베테랑 조/반장들은 잠시 현장을 떠나
촘촘히 나뉜 일정에 따라 교육을 받고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창조적 신기술"
우리가 이깁니다!



실패를 생각할 필요 없다.
만 번의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성공을 거머쥌 수 없다.
더 많이 실패하라. 여러분의 실패를 응원한다.



혁신, 현장에서부터

성우혁신사관학교 1기생들과 마찬가지로 2기생들의 일정도 짜임새 있게 진행되었다. 학습일지 및 독후감 작성, 3개월씩 두 번에 걸쳐 진행된 프로젝트 수행, 10여 명의 사내 강사 및 외부 강사의 다양한 직무교육 리더십 교육 수료까지. 해외 연수를 통해 세계 선진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것은 그중에서도 특별한 경험이었다. 수료식 현장에서는 이 같은 6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프로젝트 발표회가 진행되었으며 수료배지(Badge) 증정 및 포상이 이어졌다.

현장에서 날고뛰던 베테랑들인 만큼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 개선해나가는 과정은 특히 의미가 컸다. 가령 이미 설치된 라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처럼 당연히 하던 현장을 다시 한 번 세심히 살펴 문제를 발견하고, 협업을 통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로써 보다 능률적인 라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런 활동은 라인의 작업 효율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2기 수료생들은 기존의 설비와 방식을 뛰어 넘는 과감한 제안을 통해 고정관념을 타파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참석한 동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 일 속에서 낭비를 찾는 방법과 낭비를 줄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교육을 통해 성장한 조반장들은 현장에 돌아가서도 이와 같은 사고과정을 거치며 유연한 현장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패’를 응원합니다

이명근 회장은 때로는 발표자들이 생각 못 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수료자들의 노력을 치하하며 각각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세심하게 코멘트를 하였다. 또한 장비 효율을 끌어올리고 프레스 생산성을 올리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혁신학교의 공헌이 컸다고 평했다. 이번 수료식에서 이명근 회장이 특히 강조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실패를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껏 해보지 않은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것, 실패를 통해 배우면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에디슨은 만 번의 실패 후 전기 발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 번의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성공을 거머쥘 수 없습니다. 더 많이 실패하십시오. 여러분의 실패를 응원합니다.”

이명근 회장은 연초에 **‘창조적 신기술’**을 강조했던 바, 현장을 개선하려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신기술을 창조하게 되고 나아가 성우의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반장들은 “그냥 지나치던 부분을 이제는 달리 보게 된다. 낭비가 없는지 한 번이라도 더 세심하게 살핀다. 라인을 보는 눈이 높아진 것. 조원들과 회의하고 함께 개선을 이뤄내며 이런 활동에 대해 할수록 재미를 느낀 의미있는 교육 과정이었다”고 화답했다.

혁신이란 멀지 않다. 스스로가 변화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고, 그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계기들이 모여 성우를 발전시키는 자산이 된다. 그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겁낼 필요가 없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쌓아간 노하우는 변화에 적응하는 성우인, 더욱 유연한 현장을 만들어낼 것이다. 🌈

혁신학교 3기생 일본 우수기업 방문기 선진기업 현장에서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고민하다

5월 13일 아침, 김해공항에 성우혁신학교 3기생들이 나타났다. 4박 5일의 일정으로 일본 TPS / 가라쿠리 우수기업 방문이 목적이다. 3기생들의 얼굴에서 기대와 긴장이 교차한다.



일본 기업 견학에 앞서

나고야 숙소에 도착하여 짐을 푸는 것도 잠시, 인근 강의장에 모이자 강명상 KSA(한국표준협회) 전문위원의 특강이 이어졌다. 일본 제조기업의 흥망성쇠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경영 이념, 기업 문화에 대한 강위원의 깊은 통찰이 3기생들에게 전해졌다. 일본의 거품 경제 붕괴 후 모두가 한마음으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가라쿠리 개선, JIT(Just In Time), ECRS 사고방식(Eliminate<배제> → Combine<통합> → Rearrange<교환> → Simplify<간소화>) 등이 나왔다고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일본 기업의 독특한 경영 이념에 있다. 문제를 항상 드러내는 [문제의 현재화(顯在化)]가 그것이다. 관리감독자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은폐하지 않고 전 임직원이 공유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기준(목표,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 훌륭한 관리감독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는 드러나는 문제에 대한 관용이다.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그에 대한 원인과 해결에 집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사람에게 대한 책임추궁에 초점을 두면 문제는 숨어두고, 개선은 요원해진다. 둘째는 기준(목표, 표준)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유연한 사고방식이다. 한 번 정해진 기준도 시간, 장소, 사람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상황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기준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므로 절대 기준을 위한 기준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일본 기업의 문화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기준(목표,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 훌륭한 관리감독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용과 유연한 사고방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관리감독자가 나아갈 길이란

아침부터 1시간여를 달려 가토제작소(KATO)에 도착했다. 가토제작소는 자동차 내장부품을 도요타에 납품하는 회사로, 도요타 TPS를 자사에 맞게 잘 재구축한 회사로 평가받고 있다. 현장을 둘러보던 혁신학교 3기생들의 눈빛이 번뜩인다. 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기업답게 현장 곳곳에 오래된 흔적이 묻어나지만, 현장의 시스템은 매우 안정적이다. **현장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것이 특징이다.** 가토제작소뿐만 아니라 방문한 기업들은 저마다 차이는 있지만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조화를 모든 현장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현장 게시판을 아날로그의 감성이 물씬 풍겨난다. 관리감독자의 손길이 많이 닿은 현장 게시판을 보는 것만으로도 현장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현장 안내자의 설명에 의하면, **현장 게시판을 통해 문제점을 잘 드러내고 그 해결책을 잘 설명하는 관리감독자가 인정을 받고 일찍 승진한다고 한다.** '목표달성'은 관리감독자의 역량 이외에 많은 변수가 뒤따르므로 관리감독자의 자질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설명에서 어제 들었던 강의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오후에는 하야시 히로시(林 ひろし, HAYASHI HIROSHI) 강사의 지도하에 모의 생산 라인 공정 개선 실습을 진행했다. 생산 라인에서 직접 작업을 한 후 개선 사항을 찾아서 정리하고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쑥스러움도 잠시, 곧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도요타 차체 부문에서 30년을 근무하고, TPS 및 공정관리 장인인 하야시 씨. 일흔이 넘는 나이에 매일 자료를 찾고, 개선에 대한 고민을 놓지 않고 있다는 그의 말에 혁신학교 3기생들은 숙연해졌다.

하루 두세 곳씩 견학하며
4박 5일을 보내는 일이
녹록치 않았다. 방문한 곳마다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밀알 삼아 풍성한
성과를 만들기 위하여
매일 저녁 조별 토론과 보고서
작성이 이어졌다.

정해진 동작을 하지 않는 직원

미후네(MIFUNE)는 금형 설계 및 제작을 하는 기업으로서 4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경영진의 적극적인 TPS 도입 및 전파로 인근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품종소량생산 시대에 적합하도록 금형 보관 장소 자동화에 의한 신속한 준비교체, 금형 교체 시간의 혁신적 단축을 가능하게 했다.

현장을 안내하던 미후네 CEO가 질문을 던졌다.

“어떤 직원이 정해진 동작과 어긋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해진 동작에 대하여 직원을 교육합니다.”

미후네 CEO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말하였다.

“교육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게 ‘왜?’를 묻는 것입니다. 다그치고 혼내는 의미가 아니라, 정해진 동작도 언제든 개선할 수 있으므로 직원에게 타당한 이유를 묻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첫날의 강의를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장애인, 고령자, 창의적인 아이디어

TIY는 정밀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TIY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많이 채용하는 기업으로 일본 내에서도 유명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을 실현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높여서 해외로 나갔던 정밀 부품 생산을 다시 U턴 시킨 회사로 평가 받고 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우리는 ‘일하는 것이 삶의 즐거움이다’를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며, 가장 적합한 방법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령자와 장애인도 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떨어지거나 납기일을 맞추기 어렵지 않느냐고요? 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의적인 발상을 더욱 권장합니다.

연령, 성별,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일을 잘 할 수 있는 설비 향상에 힘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설비들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자체 개발하여 생산량을 높이고 납기일을 맞추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TIY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선한 의도가 무궁무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방문을 마감했다.



도요타

도요타산업미술관은 도요타 창업자인

도요타 기이치로(豊田喜一郎,

1894~1952)의 부친인 도요타

사키치(豊田佐吉, 1867~1930, 이하

사키치)의 발명품부터 근래의 도요타

자동차의 신기술까지 볼 수 있는

전시장이다. 사키치는 1890년 처음으로

목제 자동직기를 발명하고, 이후

개량과 개선을 거듭하여 1924년에

'G형 자동직기'를 발명했다. 1929년, 영국 '플랫'사에 G형

자동직기에 대한 특허권을 양도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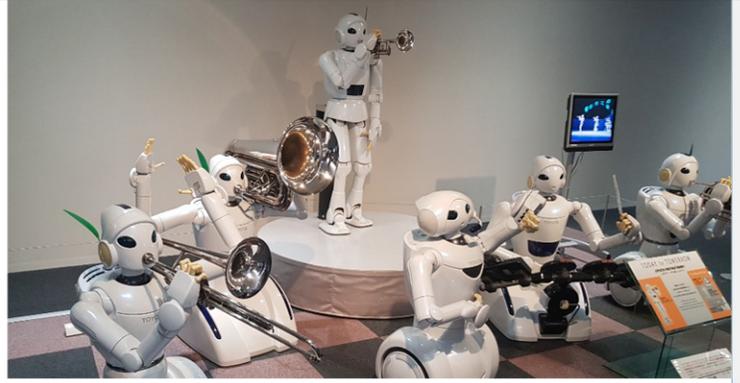
도요타 기업의 종자돈이 되었다. 도요타산업미술관은

최초의 'G형 자동직기'에서부터 최신 섬유 기술까지

전시하고 있으며, 자동차관에서는 10km도 못 가던 최초의

자동차부터 미래의 자동차까지 소개하고 있어 다음 방문할

도요타자동차 현장을 기대하게 했다.



TPS, JIT, 5Why,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동차 회사, 간반,

안돈 시스템, 관련 서적만 수백 권...

도요타 다하라 공장을 방문했다. LandCruiser, 4Runner,

LandCruiser Prado, GX460 Lexus를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1979년에 건립되어 1,400여 명이 근무하는 공장이다.

TPS(Toyota Production System)의 본산답게 간반, 안돈

시스템, 가라쿠리 개선이 곳곳에 자연스레 묻어났다.

완벽한 혼류 생산이 가능하도록 낭비 제거, 개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음이 느껴진다. 오래된 공장임에도

청결한 내부에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잘 어우러져 있다.

현장사무실이 낮은 벽면으로 흰하게 보이고, 벽면에는

각종 자료가 프린트된 게시판, 곳곳에 색상 현황 모니터가

배치되어 **눈으로 보는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입구에는

직원들의 뽀뽀한 서명이 특색 있어 보였는데, 안내자에게

물어보니 "음주운전 금지 서약문"이라고 한다. '음주운전

하면 처벌받는다'라는 글을 매일 보는 것과 자신이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매일 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음주운전을 줄일 수 있을지를 상상하니 슬며시 웃음이

났다. 1953년부터 도요타는 "**좋은 제품, 좋은 생각**"을 대표

표어로 한다는데, 매일 제품과 업무 방식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도 매일 정갈하게 잡고자 노력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일본 연수를 마치며

하루 두세 곳씩 견학하며 4박 5일을 보내는 일이 녹록치

않았다. 방문한 곳마다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밀알 삼아

풍성한 성과를 만들기 위하여 매일 저녁 조별 토론과

보고서 작성이 이어졌다. 토론과 보고서 작성은 희한한

데가 있어서 하면 할수록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저녁에 토론과 보고서 작성을 하려면, 낮에 방문한

곳에서 유심히 보고 듣고 배워야 한다. 역할도 분담해야

하고, 맡은 바를 충실히 해내야 한다. 첫째 날보다

둘째 날이, 둘째 날보다 셋째 날이 토론도, 보고서도

더욱 옹골지게 속이 꽉 찼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가운데 이루어낸 결실이었다.

토론·배려·존중·격려의 문화를 몸소 체험하며, 알찬 4박

5일이 지나갔다. **이렇게 혁신학교 3기생들은 더 나은**

현장관리자가 되어 돌아왔다. 



위기 극복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잡다

가라쿠리 개선

1650년 일본 쇼군(將軍)의 접객실.

또각또각또각또각또각...

나무로 만든 인형이 찻잔을 받침대에 담아 손님에게 가져 온다. 손님이 차 한 잔을 비우고, 잔을 받침대에 올리자 인형이 스스로 주인에게 돌아간다. 17세기 일본의 귀족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한 '차 나르는 인형'이다.

이 인형은 어떻게 스스로 차를 나를 수 있었을까? 이 간단해 보이는 인형 안에는 태엽으로 수많은 톱니바퀴가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다. 당시 유럽에서 건너 온 태엽 시계에 감탄한 일본 막부가 장인들에게 이를 복제하도록 하였고, 나아가 더 발전시켜 만든 작품이 '차 나르는 인형'이다. 이외에도 활 쏘는 인형인 '궁예동자',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인형, 팀파논을 연주하는 인형 등이 있다. 이렇게 당시 서양의 첨단 기술과 장인의 기술, 전통인형이 합쳐서 만들어진 자동인형을 가라쿠리(カラクリ)라고 하며, 이 기술을 제조 현장에 접목한 개선활동을 '가라쿠리 개선'(우리말로는 '간이자동화')이라 한다.

1990년대 초 일본. 일본은 버블경제(Bubble economy)의 붕괴로 난관에 빠졌다. 1980년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한 4.6%에 달했던 연평균 성장률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0.9%대로 푹 떨어졌다. 일본 제조업계는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인건비가 싼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방법이 가장 손쉬웠다. 인건비 감소를 통한 생산비 절감이 기업의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일본 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 기업 입장에서도 해외 이전에 따른 초기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었고, 난관을 헤쳐 나갈 돌파구를 찾아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전통 인형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가라쿠리 개선이었다. 설비투자 비용을 최소화하여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일본 제조업계의 교육지책(苦肉之策)이었다.

1994년, JIPM(Japan Institute of Plant Maintenance)은 일본의 전통 인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1회 가라쿠리 개선 전시회”를 개최했고, 현재까지 매년 대회가 이어지고 있다.

가라쿠리 개선의 성공은 두 가지에 의하여 좌우된다.

첫 번째는 “위기의식”이다. 가라쿠리 개선은 탄생부터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전 임직원의 의지에서 출발했다. 위기의식은 경영진만의 몫도 아니고, 근로자가 수동적인 자세로 지켜볼 문제도 아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자동차업계의 미래를 경영진과 근로자가 모두 인식하고 이겨내겠다는 결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재미”에 있다. 현장 작업자가 가라쿠리 개선을 보는 재미, 원리를 깨닫는 재미, 실제로 만들면서 자신감을 느끼는 재미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가라쿠리 개선을 통해 현장 작업자가 성취감을 느끼면서 자아실현이 가능한 직장, 보람 있는 일터로 전환된다.

성우하이텍은 2018년부터 정기적으로 ‘가라쿠리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수많은 아이디어가 무수한 별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다.

● **가라쿠리 개선은**

- ① 매커니즘이 단순하고(동력, 용수철, 지레, 캠, 빛, 실, 끈, 축, 톱니바퀴 등이 이용),
- ② 고장 발생 시 대응이 용이하며,
- ③ 돈(비용)이 들지 않거나 적게 들며,
- ④ 현장의 불합리, 낭비, 불균형을 퇴치시키는 작업 개선으로서
- ⑤ 품질·생산성·보전성·물류효율·안전성 향상으로 큰 성과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가라쿠리 개선의 전개**

1단계(입문기): 문제해결형의 활동

- ① 작업자가 즐겁고 빠른 작업이 가능할 수 있게 요소공정의 수를 줄임
- ② 작업자가 “해보니 가능하네”라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할 것

2단계(실천기 or 정착기):

목표에 직결되어 성과를 내는 활동

- ① LCA(Low Cost Automation / 간이자동화)와 자동화·무인화를 목적으로 높은 효과 기대
- ② 가라쿠리 도입을 통해 제조 부문에서는 작업 표준서, 기술 부문에서는 설비 설계 등 각 부분이 필요로 하는 개선 내용과 연결하여 개선의 효과 도출

최종 목표

“보람 있는 직장 만들기”와 “돈을 버는 활동”의 일석이조 🎯

2019 노사화합 워크숍

활발한 소통이 '창조적 신기술'의 밑거름

1981년 잭 웰치는 마흔다섯의 나이로 최연소 GE(General Electric) 회장에 올랐다. 당시 GE는 환경변화에 둔감하고 덩치가 큰, 노화된 기업이었다. 그는 관료주의에 찌든 GE의 조직문화를 완전히 뜯어고쳤다. 짧은 기간에 단행된 변화는 가히 '혁명'이라 할만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업문화의 변화. 직위나 소속에 상관없이 토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타운미팅'을 도입했다. 이 미팅에는 참가자 모두 직위와 나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진다. 경영자든 생산·기술·인사 부문의 담당자든 현장 노동자든 제한이 없었다. 현재 당면한 문제들은 무엇인지, 어떤 문제부터 풀어낼 것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모두 간부나 CEO가 아닌 직원들이 찾아냈다. 그들은 생산, 기술, 영업, 노조 등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들여다보고 대화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직위도 한계도 없었다. 다각도의 접근과 자유로운 소통은 최선의 균형 잡히고 종합적인 결론으로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자신이 내놓은 아

이디어가 채택되고 실행되는 것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일 수 있었다.

잭 웰치의 과감한 선택은 경직되었던 GE의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 결과 1981년 당시 시장가치 총액 120억 달러의 GE는 20년 만에 4,500억 달러 수준(2001년 기준)까지 올랐고 잭 웰치는 그 능력을 인정받아 1999년 <포춘>이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경영자"에 꼽혔다. GE의 성공은 또한 미국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바뀌어 놓았다. 미국 기업들은 GE의 열린 토론 문화를 받아들였고 열린 소통 문화는 미국 사회 전반으로 퍼졌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혁신 기업들의 탄생과 세계적인 성공 배경에



반짝이는 아이디어의 원천,
자유롭게 소통하는 열린 조직 문화가
기업의 성공과 도태를 판가름하는
중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는 자유로운 의견 나눔이 가능한 열린 소통 문화가 바탕이 되어 있다.

열린 소통 문화의 중요성은 뒤늦게나마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학기술과 문화가 융합하여 새로움을 창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관료주의에 빠진 경직된 조직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의 원천, 자유롭게 소통하는 열린 조직 문화가 기업의 성공과 도태를 판가름하는 중요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대한상회의 100대 기업 인재상의 변화에 따르면 2008년 5위를 차지했던 '소통, 협력' 항목이 2018년 1위로 올라섰다. 전문성이나 도전정신, 열정보다도 조직을 하나의 목표로 이끄는 조직원들의 화합, 그 기본 요소로서

소통의 가치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외부 상황의 변화에 따른 위기를 돌파하는 최고의 방법은 내부적 결속을 다지는 것. 그리고 노사가 한마음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정진하기 위한 기본이 또한 '소통'이다.

성우하이텍은 2월 25일부터 10차수에 걸쳐 1박 2일 일정의 노사화합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노사 간 갈등에 대해 이해하고 신뢰 증진을 위한 소통 방안과 사내 소통 능력 향상 스킬을 키워주는 다양한 강의와 미션이 마련되었다. 이번 교육이 조직 화합 및 신기술 창조의 길로 이끄는 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조직 내 소통 문화를 자리 잡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신입사원 현장실습

땀내 “살아있는” 성우의 속살을 만나다

2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4차수에 걸쳐 신입 및 경력사원들의 현장실습이 진행되었다.
실시간으로 제품이 만들어지는 에너지 넘치는 현장, 제조업의 중심이다.
각 차수 당 2주간 진행된 현장실습에서 신입사원들은 어떤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되었을까?



어서 와~ 현장은 처음이지?

긱가를 때리는 기계음, 심 없이 움직이는 자동화 장비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작업들... 제조업의 중심, 제품이 생산되는 현장의 모습이다. 현대, 노련한 작업자들 사이로 어딘지 어설피(?) 보이는 새 얼굴들이 눈에 띈다. 가벼운 실수에 노련한 베테랑이 손을 보태는 모습도 포착된다. 올해 성우 가족이 된 신입사원들의 현장실습 첫날 풍경이다.

현장 투입 전 난생처음 제조업 현장 근무를 앞두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어쩐지 비장함마저 감돈다. 딱 짜인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되는 현장에서 혹여 실수를 하여 누가 되지는 않을지, 낯선 현장 직원들과 잘 어울리기는 할지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회사 측에서는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한다. 두 시간 동안 진행된 안전 교육 후 드디어 현장 투입. 간단해 보이던 반복작업이 만만찮다.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만큼 정신없었던 첫날 저녁, 익숙지 않은 작업에 온몸 근육이 아우성이다. 반복 로딩 작업에 어깨는 빠근하고 내내 서 있었던 탓에 다리도 통통 붓는다. 이튿날부터는 작업에 좀 더 익숙해진다. 휴식 시간이면 현장의 동료들과 이야기 나눌 여유도 생긴다. 길기만 했던 하루하루가 제법 익숙해질 무렵, 신입사원들은 서창과 정관, 금형공장 현장에서의 2주 현장실습을 마무리 지었다.



현장직과 사무직, 성우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2주간의 실습 후 신입사원들은 소감문 작성을 통해 현장 근무에 대한 솔직한 감회를 나누었다. 이번 현장실습에서 신입사원들이 주로 맡은 것은 로딩 업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업무는 아니었지만 느낀 바는 컸다.

실제로 일을 해보니 기계가 오작동하거나 자재 조달의 문제로 작업이 끊기기도 했다. 효율이 떨어지는 설비도 보였다. 사원들은 현장에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설비, 자재 조달 등 문제가 없도록 세심히 살펴야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현장에서 근무해보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근무자들의 노고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향후 업무하는 데 있어 현장을 먼저 생각해야겠다는 다짐도 전했다.

팀 성격에 따라 현장에 전혀 갈 일이 없는 직원들도, 현장과 긴밀히 관계 맺을 직원들도 한목소리로 말한 것은 소통의 중요성. 현장직이든 사무직이든 '성우'라는 이름 아래 모인 한 가족임을 생생한 현장 경험을 통해 깨달은 한편, 활발한 소통으로서 더욱 단단한 조직을 만들어갈 것을 다짐한 소중한 기회였다.

현장실습을 마치며

인사노무팀 채금석 사원



2019년 입사한 인사노무팀 채금석 사원입니다.

신입사원 현장실습을 마치며 2주간 경험했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라 빙긋이 웃음이 납니다. 가공2반, 조립3반을 한 주씩 경험하며 미숙한 점도 많았지만, 선배님, 동료들의 조언과 격려 속에 비로소 성우하이텍의 일원이 되어가는 것을 느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가공2반에 들어선 순간의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열렬한 환대까지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예상보다 무심한 눈빛과 서늘한 분위기에 살짝 움츠러들었습니다. 서운한 마음도 잠시, 이내 입장 바뀌 생각해보았습니다.

‘일주일이면 떠날 신입사원, 일도 제대로 못해서 불편함만 줄 사무직 직원.’

동료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문득 동료분들의 그런 생각을 바꿔보자는 결의가 생겼습니다. 하나라도 더 배우려 애쓰고, 귀 기울이고, 먼저 인사하며 다가선다면 동료분들도 마음을 열 것이라 믿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신입사원의 열정과 패기를 보여주자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곧 오해(?)가 풀렸습니다. 업무를 시작하자 같은 라인에 있던 선배님들의 친절함 보살핌에 움찔했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무심한 눈빛과 서늘한 분위기는 그저 새로운 사람에 대한 어색함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작업 과정, 작업의 필요성,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까지 알려주는 세심한 배려에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조립3반 첫 조회, 김성기 반장님의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사무직이든 현장직이든 우리는 같은 성우인이다.”

아버지뻘이신 반장님께서 말투는 질박하셨지만, 우리 회사를 위하는 마음은 너나없이 한마음이며, 모든 업무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놀랐던 점은 반장님이 처음 느꼈던 말투와 달리 다정다감한 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비단 반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에는 다정다감한 분이 참 많으셨습니다. 작업에 익숙지 않은 저에게 ‘안전’을 강조하며 걱정해주신 이석민·정만기 기사님, 반복적인 실수에도 늘 넉넉한 웃음을 지으며 친절하게 가르쳐주신 주옥주·정용호 기장님,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현장실습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생고들목살구이에 소주 한 잔을 곁들여 그날의 경험을 영웅담처럼 나누며 깔깔했던 입사 동기들, 지나칠 때마다 “힘들었지?”, “할 만 했니?”, “수고했다”며 격려해주는 인사노무팀 선배님들과 한층 더 돈독해진 것은 현장실습이 주는 덕이었습니다.

평소 익숙지 않았던 작업들이었기에 약간의 실수도 있고 진행속도도 더뎠지만 앞으로의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여 회사에 일조할 수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어쩐지 좀 더
끈끈해진 듯한 동기라

다함께 의견을 말해볼까요?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이번 경험은
무언가를 느꼈기 바랍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현장실습도 끝.
이제는 으며 말할 수 있어요.

김순근 사원의 생애 첫 마라톤 참가기

봄을 알리는 부산의 첫 번째 마라톤, '제17회 성우하이텍 배 KNN 환경마라톤'이 화창한 날씨 속에서 치러졌다. 올해 대회에는 유독 눈에 띄는 참가자가 있다. 보전2팀 김순근 사원이다. 생애 첫 마라톤에 참가한다는 김순근 사원은 10km 경쟁 부분에 도전했다. 첫 도전인 점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경쟁부분 참가. 이 코스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주최 측의 실수(?)가 있다고 하는데~ 김순근 사원의 생애 첫 마라톤 참가기를 따라가보자.



대회장 가득한 성우인들

일요일 새벽부터 대회장은 북적북적. 이른 봄이지만 쾌청한 날씨가 달리기엔 아주 적당하다. 목표한 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든다! 열린 성우하이텍 부스를 찾아가니 먼저 온 동료와 가족분들로 부스가 그득하다. 주최사인 만큼 성우하이텍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가하니 더 의미가 큰 것 같다. 번호표와 기록칩을 받고 운동화에 부착하니 마라톤에 참가한다는 걸 실감한다. 동료들과 어울려 기념사진도 남기며 성우인이란 소속감을 다시 한 번 느낀다.



준비운동은 필수

대회장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차기 시작하자 대회 운영본부에서 준비한 공연이 시작되었다. 흥겨운 음악에 맞추어 공연단의 화려한 공연이 대회 열기를 띄운다. 박수를 치며 몸을 흔드는 사이 열이 오르기 시작한다. 새벽 찬기운에 굳었던 몸이 좀 풀어진 후 본격적인 준비운동 시작! 제자리 뒹뒹기와 스트레칭을 하며 목표한 1시간 안에 피니시라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는다.



Start 라인으로 이동

벅스코 전시장에서 출발지까지는 걸어서 5분. 내가 참가한 10km 경쟁부분이 가장 먼저 출발한다. 저마다 목표를 정한 경쟁부분답게 참가자들의 얼굴에도 어쩐지 긴장이 느껴진다. 원래 10km 비경쟁부분에 참가 지원을 했던 나는 어쩐 일인지 10km 경쟁부분 참가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마라톤 첫 참가에 경쟁부분이라니, 처음에는 좀 부담이 됐었지만 대회를 즐기자고 마음을 고쳐먹으니 한결 가볍다.



드디어, Start!

막상 스타트라인에 서니 긴장감으로 가슴이 두근두근~ 격려하며 손 흔들어주시는 이문용 대표이사 사장님의 응원에 힘이 난다. 지난 2월 4주차 일요일부터 계속해온 연습도 떠오른다. 함께 출전하는 친구와 매주 강변 산책로에서 7km씩 달렸던 시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연습했으니 좋은 결과가 있겠지!
 “한 번도 쉬지도, 걷지 않고, 1시간 안에 10km 완주!”
 목표를 마음속으로 외치며 출발!

AM 9:10

8km 지점

연습을 한다고 했지만 10km를 풀로 달리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숨은 턱턱 막히고 다리는 후들후들~ 걷지도, 쉬지도 않겠다면 다짐은 어느새 잊고 마냥 걷고만 싶은 그때. 갑자기 내 옆으로 익숙한 사람이 횡~ 지나가는데, 바로 비경쟁부문에 참가한 친구였다! 이전에도 마라톤에 참가했던 친구는 페이스 조절에서 나를 월등히 앞선 것이었다. 앞서가는 친구를 보는 순간 포기하지 말자는 마음과 은근한 승부욕도 불끈! 걸으려던 생각은 어느새 사라지고 친구의 등을 보며 속력을 낸다. 부들거리던 다리에 힘이 들어간다.



드디어 Finish Line 통과

멀리서 Finish Line을 본 순간,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마지막 스퍼트를 올린다. 함께 달려온 참가자들과 함께 드디어 Finish Line을 밟는 순간, 목 끝까지 차오른 숨을 크게 토해내었다. 무릎을 짚고 한참 숨을 고르는 내게 먼저 들어온 친구가 다가와 물병을 건네었다. 시원하게 갈증을 해소해주는 물 한 모금이 그렇게 다디달 수가 없다. 오늘 내 기록은 0:51:49.508. 첫 참가대회에서 목표했던 ‘한 시간 안에 완주’, ‘한 번도 걷지 않고 쉬지 않기’를 모두 이뤄내어 개인적으로 성취감이 크다. 51분 49초. 앞으로도 잊지 못할 숫자가 되지 않을까.

AM 9:50

기념사진 남기고 꿀맛 같은 식사

환경마라톤대회의 꽃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가 아닐는지. 뿌듯한 마음으로 찾은 식당은 가족, 친구와 함께 온 동료들로 북적였다. 뷔페식당 입구에 마련된 패널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함께 참가한 친구와 기념사진을 남겼다. 그제야 허기가 몰려온다. 온힘을 짜내어 달린 후라 그런지 음식 하나하나가 꿀맛이다.

의미 있는 도전을 하고 친구와 좋은 시간도 보냈던 오늘은 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마라톤 자체적인 매력만큼 성취감이 큰 '성우하이텍배 KNN 환경마라톤', 내년 대회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제 17회 성우하이텍배 KNN 환경마라톤' 대회 성료



3월 17일 해운대 벅스코에서 '제17회 성우하이텍배 KNN 환경마라톤'대회가 열렸다. 매년 많은 성우인들이 해당 대회에 참가하여 가족 및 동료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봄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올해도 성우인들은 1만여 명의 다른 참가자들과 어울려 수영강변, 광안리 해변을 돌아오는

10km(경쟁/비경쟁), 5km(건강 달리기) 코스를 달렸다. 마라톤 동호인들, 파이팅 넘치는 성우인들, 아이와 함께한 부모들, 경쟁부문에 참가한 아마추어선수들까지 저마다의 목표를 이뤄낸 참가자들의 얼굴엔 어느 때처럼 만족감으로 가득 찼다. 도심의 친수공간을 달리며 성큼 다가온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대표 마라톤. 올해도 성우인들은 만개한 봄을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쌓았다. 🌈



성우의 봄은 당신의 여름보다 뜨겁다!

제16회 성우하이텍 회장배 족구, 탁구, 풋살대회



여름을 재촉하는 깜짝 더위가 찾아온 5월 24일.
서창공장 전용경기장에서 '제16회 성우하이텍 회장배 족구, 탁구, 풋살대회'가 개최되었다.
내리찍는 햇볕만큼이나 뜨거웠던 성우인들의 한판 승부.
'제16회 성우하이텍 회장배 족구, 탁구, 풋살대회' 현장을 찾았다.





승부는 승부다!



한여름 날씨라 할 만한 뜨거운 더위가 찾아온 이날. 서창공
 장 옥상의 풋살 경기장에 모인 본선 참가자들이 저마다 손
 으로 그늘을 만들고 대회 시작을 기다렸다. 아산과 정관, 지
 사, 건천 등 각지에서 모인 반가운 얼굴들이 오늘의 대회를
 기대하게 했다. 진행 팀은 매년 그렇듯 정정당당한 경기를
 펼쳐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올해는 특히 날이 더운 만큼 무
 리하지 말고 경기 자체를 즐겨줄 것을 강조하였다.

“시원한 음료와 수박화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기 중간중간 꼭 수분 보충하시면서 대회를 즐겨주세요!”

날씨만큼이나 대회를 앞둔 참가자들의 기대는 뜨거웠다. 치열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참가자들의 에너지 넘치는 모습에 이명근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승부욕을 북돋웠다.

“건강한 여러분이 건강한 가족, 건강한 성우하이텍의 밑거름입니다.

승부는 승부! 한 경기 한 경기에 최선을 다해 힘껏 싸웁시다!”

이어 본격적인 대회 개막을 알리는 이명근 회장의 시축이 이어졌다. ‘뽕’ 하는 호각 소리와 함께 시원하게 골인! 올해는 어떤 경기가 화제를 모을지 기대감을 더하였다.

족구와 풋살 경기장, 탁구 경기장에서는 더위도 아랑곳 않은 명승부들이 펼쳐졌다. 땀이 비 오듯 하면서도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에 관중들도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달달하고 시원한 화채는 단연 인기 만점. 아삭한 식감의 달달한 수박과 시원한 얼음에 더위가 한풀 가시었다.

최선을 다해 기량을 펼쳐준 선수들도, 뜨거운 응원으로 화답한 관중들도, ‘성우’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하나가 된 축제 한마당이었다.

화제 만발 경기 이모저모

단일 경기로는 가장 많은 성우인이 참가하는 탁구 경기는 올해에도 화제였다. 개개인의 실력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 매년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하는 남자부 경기와 멋들어진 호흡을 보여주는 혼합경기, 화려한 기술이나 아슬아슬한 랠리는 없지만 남자부 경기 못지않게 인기인 여자부 단식 경기까지. 작년 첫 출전으로 준우승을 거머쥐었던 핫스탬핑 권성희 대리와 R&D 센터 박주영 연구원의 경기는 특히나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첫 세트와 두 번째 세트를 각각 따낸 두 사람은 마지막 3세트에서 계속되는 동점 랠리를 보여주었다. 7점부터 12점까지 계속된 랠리 끝에 마침내 승리한 권성희 대리. 그러나 두 사람의 승부는 끝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혼합 복식 결승에서도 맞붙은 것. 혼합 복식을 R&D센터가 가져가며 1 대 1 기분 좋은 결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양산시 탁구협회 소속 선수들의 시범 경기에는 올해도 구름 관중이 몰려들었다. 이명근 회장을 비롯해 임직원들의 눈과 귀가 온통 집중된 가운데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시작되었다.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는 스매싱과 날카로운 드라이브 공격을 강한 커트로 막아내는 환상적인 수비!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경기에 여기저기서 환호가 터졌다. 강하게 몰아붙였다가 적당히 풀어주고 또다시

죄어주는 랠리는 마치 음악 리듬 같아 성우인들의 흥을 이끌어내었다.

족구 경기장에서는 아산A팀이 대회 6연패를 달성하며 입이 떡 벌어지게 했다. 각종 사외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실력자들인 만큼 앞으로도 성우의 이름을 더욱 떨쳐주기를 응원하였다.





단식 경기로는 가장 많은 성우인이 참가하는 탁구 경기는 올해에도 화제였다. 개개인의 실력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 매년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하는 남자부 경기와 멋들어진 호흡을 보여주는 혼합경기, 화려한 기술이나 아슬아슬한 랠리는 없지만 남자부 경기 못지않게 인기인 여자부 단식 경기까지.

축하합니다! 올해의 우승자(팀)



족구

아산A팀

6연패 대기록을 세운
'어.우.아(어차피 우승은 아산)'



탁구(남자 단식)

최귀훈 기장 (공정기술반)

남자 단식의
신동강자 탄생~



탁구(남자 복식)

조일환 기장, 이상두 기장 (지사 조립계)

대기 넘치는 젊은 선수들의
도전을 꺾은 노련미의 승!



풋살

아산B팀

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은
땀을 던진 열정의 주인공들~



탁구(여자 단식)

권성희 대리(인사노무팀)

첫 출전 준우승에 이은 우승,
내친 길에 내년엔 2연패?



탁구(혼합 복식)

임성수 책임연구원 (경량설계팀), 박주영 연구원 (신제품평가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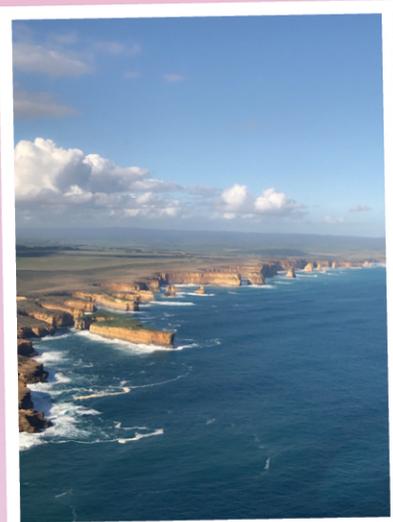
단식 경기의 아쉬움을
복식에서 달래다~

“성우인들에게 추천합니다!”

내가 다녀온 최고 여행지

기다리고 기다리던 휴가의 계절!

성우인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 집에서 편히 쉬는 소소한 힐링, 혹은 혼자 떠나는 여행으로 나만의 시간 갖기? 아직 아무 계획이 없다면 성우인들이 추천하는 여행지는 어떤가요. 성우인들이 보장하는 Best 여행지를 만나봅시다!



최민경 사원(공법기획팀) 호주

한국에선 볼 수 없는 탁 트이고 웅장한 호주의 대자연! 그레이트 오션로드 헬기투어를 통해 12사도 바위를 찾는 쓸쓸한 재미! 스트레스를 싹~ 날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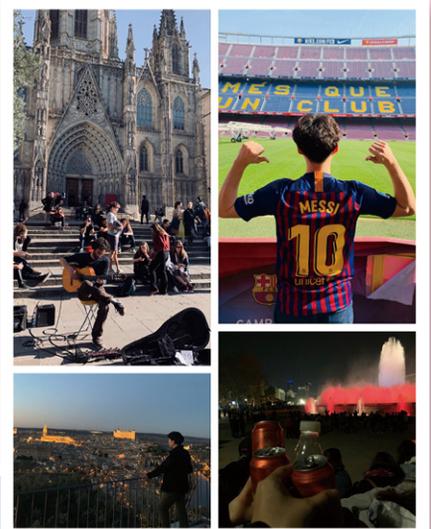
이창수 대리(보전1팀) 미국 그랜드 서클

짧은 여름휴가 기간, 영화 <포레스트검프>의 촬영지인 포레스트검프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다시 찍는 웨딩촬영~ 잊을 수 없네요~



김민석 연구원(신제품평가팀) 송정

제가 꿈는 휴가지는 송정입니다. 가깝고,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서핑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김준호 사원(생산기술1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만난 '가우디'의 역작, '빠에야', '하몽' 등 맛있는 음식, 축구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바르셀로나, 레알마드리드 투어! 각각각색의 재미로 가득합니다!



이창근 조장(공정QC) 세부

가족여행으로 갔던 세부! 에메랄드빛 바다와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함께 뛰어준 가족 덕분에 인생샷을 건졌네요~ 가족과 함께 해 더욱 즐거웠던 여행입니다.



김정일 조장(성우홀딩스 금형반) 한라산

5년 전 아들 초등학교 1학년 때 함께한 한라산 종주를 잊을 수 없습니다. 한라산 정상을 정복한 멋진 아들, 표지석 앞에서 남긴 한 컷입니다.



이진 사원(인사노무팀) 베트남 다낭

가족들과 함께한 첫 해외여행지, 베트남 다낭! 하늘도 예쁘고, 음식도 맛있고! 한적한 힐링여행을 꿈꾸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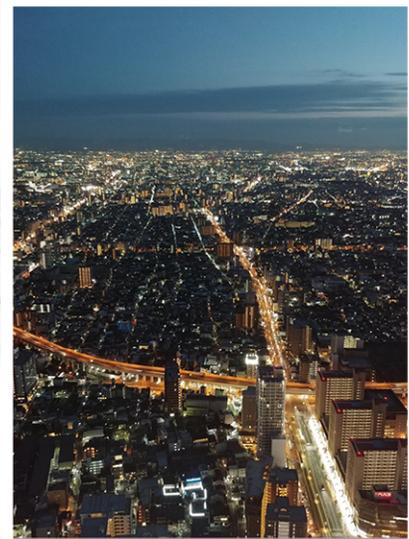
육대성 대리(통합구매팀) 괌

스노클링, 패러세일링 등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고 정말 예쁜 바다와 노을을 볼 수 있는 괌을 여름 여행지로 추천해요!



주현민 과장(원가2팀) 멕시코 테오티우아칸

신들의 도시, 태양과 달, 피라미드로 유명한 곳. 정말 거대하고 또 거대한 피라미드를 눈앞에서 품어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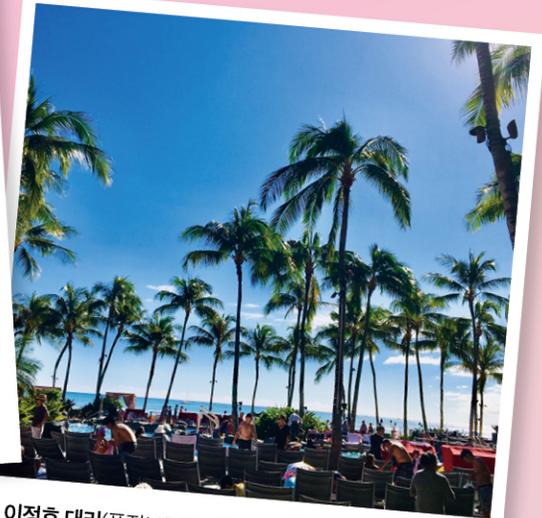
이후관 대리(금형설계팀) 일본 오사카

일본 오사카 하루카스 300에서 찍은 일본의 야경입니다. 이곳 스카이 라운지가 다른 건물보다 높아 멀리까지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풍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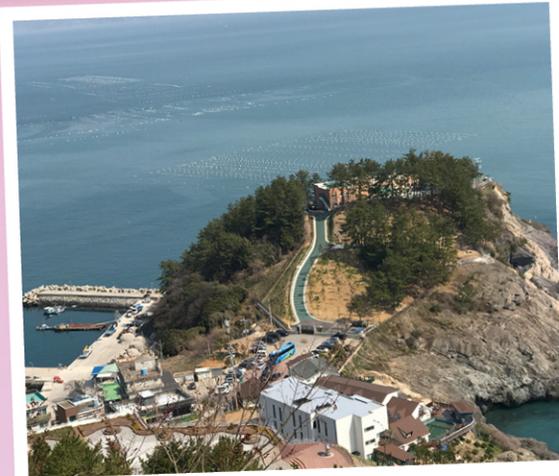
이동만 조장(지사조립계) 광

지난해 휴가를 맞이하여 동료,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 광을 추천합니다.



이정호 대리(품질보증팀) 하와이

말해 뭐해? 직이긴 직임 비싸긴 비쌌! 돈값 하긴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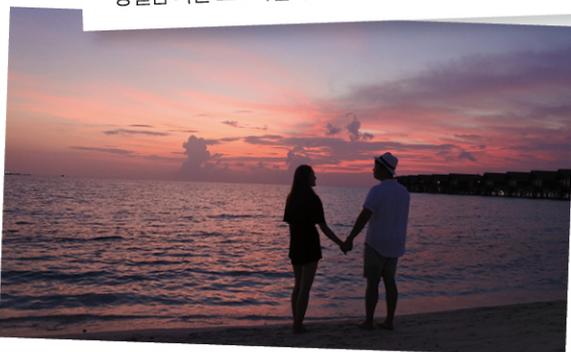
우병도 과장(생산관리팀) 전남 여수

전남 여수 향일암입니다. 바다 경치가 시원하니 탁 트여서 좋고, 향일암 가는 오르막길이 아주 예쁩니다.



김용기 기사(프레스가공반) 아부다비

작년 여름 15년 지기 친구와 가족 여행을 다녀온 곳입니다. 어느 곳에서 찍어도 '인생샷'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한현우 사원(생산기술1팀) 몰디브

제가 다녀온 최고의 휴가지는 몰디브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바다와 모래사장, 매일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 최고의 힐링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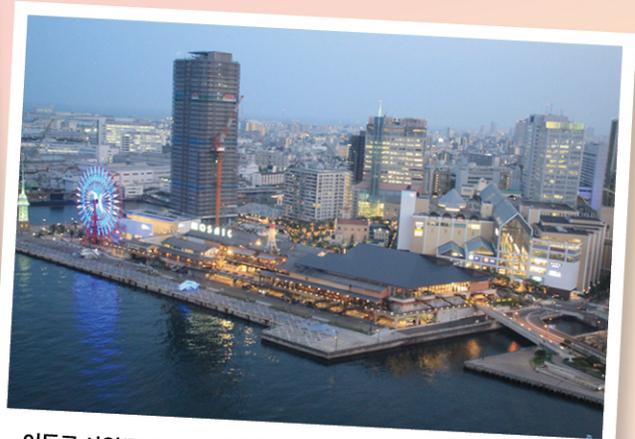
김상훈 사원(아산인사총무팀) 오키나와

가족과 함께 예쁜 사진을 남기고 넓은 바다를 보면서 바람을 맞으면 속이 시원해지는 마법이 일어나요.



김성구 연구원(선행기술팀) 베트남 호이안

올해 4월, 오랜 친구와 함께 다녀온 곳입니다. 부담 없는 가격에 여유롭게 휴양&관광을 잘 하고 왔습니다. 다들 꼭 한 번쯤은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근 사원(품질경영팀) 일본 고베

일본 고베의 Mosaic 쇼핑몰의 해질녘 야경입니다. 쇼핑 공간, 관람차 및 전망대까지 있으며 씨푸드 레스토랑과 예쁜 카페도 많아서 가족, 연인과 함께하면 좋아요!



최성욱 기장(지사조립계) 베트남

16명의 대가족이 함께한 베트남 여행. 결혼 20년 만에 첫 해외여행. 온 가족의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과 함께 베트남으로 떠나보시죠.



최진원 대리(품질경영팀) 여수

작년, 밤이 아름다운 여수로 가족과 휴가를 떠났습니다. 여수는 가족, 연인, 친구 어느 누구와 가도 감동이 밀려오는 곳입니다. 강추합니다!



최배승 과장(금형설계팀) 교토

30년지기 친구들과 다녀온 교토. 여행의 즐거움은 어디를 가느냐가 아닌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단 걸 일깨워준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 당첨을 축하드립니다.(커피교환권 지급)

성우홀딩스 금형반 김정일 조장, 생산기술1팀 김준호 사원, 지사조립계 이동만 조장, 공정QC 이창근 조장, 보전1팀 이창수 대리 🍷

대표이사와 함께한 2019 공채사원 등산행사
한줄 고전에 담긴 교훈으로 돌아보다

智者樂水 지자요수
仁者樂山 인자요산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한다. [논어]



愼終于始 신중우시

시작이 반이라고 했던가.
끝을 잘 맺되 시작부터 신중히 [서경]

5월 10일, 110여명의 공채 신입사원들은 이문용 대표이사 사장과 함께 등산행사에 나섰다. 오전 9시. 배내봉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다. 다들 표정이 여유롭다. 행사를 진행하는 총무안전환경팀은 무엇보다 안전한 등산이 되도록 부상방지를 위한 스트레칭과 안전교육을 철저히 진행하였다. 잘 준비된 시작은 원활한 산행과 안전한 마무리로 귀결된다. 이문용 대표이사 사장이 등산의 시작을 알리며 선두에 섰다.



泰山不讓土愧 태산불양토괴 故能成其大 고능성기대

작은 포용이 만드는 큰 힘.
태산은 한줌 흙도 버리지 않아
그처럼 크게 될 수 있었다. [문장계법]

등산로는 준비가 잘 되어 있지만 난이도가 꽤 높다. 가파른 산길이 정상까지 이어진다. 일행을 이끄는 이문용 대표이사 사장의 걸음은 지칠 줄 모른다. 대표이사 사장의 체력에 다들 놀란 눈치다. 선두는 후미의 상황을 이해하며 올라가야 한다. 따라오는 경우가 더 잘 지치기 때문에 간격이 벌어지거나 낙오자가 생길 수 있다. 한 사람이라도 대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전체를 조율하며 산행은 계속 된다.

行百里者半九十 행백리자반구십

백리를 가고자 하면 구십 리를
반으로 여길 줄 아는 지혜를 가져라. [전국책]

드디어 배내봉이다. 정상을 올랐다는 기분도 잠시! 총무안전환경팀의 변성훈 사원이 3개의 봉우리 중 첫 번째에 도착했음을 알리자 여기저기서 허무한 듯 웃음과 한숨이 섞여 나온다. 백리를 가보면 마지막 십리가 가장 힘들다고 한다. 배내봉에서의 숨고르기는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였다. 우리 사원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에서 지친 기색보다 완행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人而無信 인이무신 不知其可也 부지기가야

성공의 첫째 조건, 사람으로서 신의가 없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논어]

김영민 사원(생산기술 2팀)은 산행중에 유난히 힘들어 보였다. 드디어 두 번째 휴식 시간! 김영민 사원이 회심의 미소와 함께 가방을 열었다. 음료와 갖가지 과일들, 거기다 본인은 먹지도 못하는 오이까지! 분명 자신보다 동료들을 먼저 생각했음이 틀림없다. 유난히 지쳐 보인 이유는 그득한 가방 때문이었다. 함께 맛있게 먹고 재충전을 하자 묵묵히 뒷정리까지 하는 그의 모습이 훈훈하다. 신뢰는 먼저 상대를 배려하고 베풀어서 나누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見賢思齊焉 견현사제언

선진의 모습을 닮기를 바라노라.
어린 이를 보면 그와 같아지기를 생각한다. [논어]

드디어 신불산 정상. 정상을 맛보는 모습이 제각각이다. 몇몇이 이문용 대표이사 사장과 기념촬영을 하자, 곧 너도 나도 사장님과 포토타임을 자청한다. 그 모습은 상하관계가 아닌, 정상에 오르며 동행하던 모습 그대로다. 어색했던 동기와 마음을 나누고, 친한 사이는 더 돈독해졌다. 이문용 대표이사 사장에게도 공채사원들과 동료로서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다.





不憤不啓 불분불계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배움을 얻을 수 없다.
열정으로 마음을 꿰뚫어 하라. [논어]

산등선을 따라 배내봉과 간월재,
신불산 봉우리를 거쳐 내려오는
일곱 시간 가량의 쉽지 않은 등산
코스였다. 산행을 무사히 마무리 지은
성우인들은 눈빛은 여전히 빛난다.
이문용 대표이사 사장은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하고자 하는 열정과
도전정신을 가지도록 선배로서의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MINI INTERVIEW

생산기술2팀 김미나

愛之, 能勿勞乎

애지, 능물로호

사랑한다면 어찌 고생시키지 않겠는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자 축복받으리~ [논어]

등반대회 전, 선배들이 “잘 다녀오라, 아마 사무실이 그리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땐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를 위해 끝까지 함께 산행해주신 총무안전환경팀의 진영철 차장님, 감사합니다.

생산기술1팀 주성우 사원

所見所期, 不可不遠且大

소견소기, 불가불원차대

보는 것과 바라는 것이 멀고 크지 않으면 안 된다.
스텝 바이 스텝, 멀리 보며 큰 꿈을 갖자. [근사록]

제 생각에 직장 생활의 고비는 3, 6, 9개월마다인 것 같아요. 입사 후 3개월을 막 넘기고 여러 생각이 들던 찰나 등반대회가 있었고, 저의 목표를 되 돌아본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사보를 꼭 챙겨보시는데, 아들 이름 보시고 잠깐이라도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발1팀 전현수 사원

一人之心, 千萬人之心也

일인지심, 천만인지심야

내 마음이 곧 너의 마음. 한 사람의 마음은
천만 사람의 마음과 같다. [문장계범]

지치고 힘들 때, 저를 다독여준 동기들 덕에 무사히 산행을 마쳤습니다. 특히 인사노무팀 이진 사원이 동료들을 응원하는 모습에 저도 동료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돕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성우’로 통하였습니까?

2019 성우 후견인제도

좁은 취업문을 통과한 신입사원들을 기다리는 것은 낯선 조직생활. 성우하이텍은 ‘성우 후견인 제도’를 마련하여 취업 못잡게 힘들고 중요한 신입사원들의 입문 과정을 돕고 있다. 후견인 선배가 후배를 전담해, 고민도 상담하고 노하우도 전수해주며 조직 내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후견인제도의 이모저모를 만나본다.

1월 21일부터 4월 12일까지 12주 과정의 ‘성우 후견인 제도’가 시행되었다. 성우 후견인제도는 ‘사수’와 ‘부사수’의 개념을 연장한 활동이다. 후견인으로 지정된 선배사원은 후배사원의 업무 습득은 물론 업무 외 개인생활 등 각종 애로사항까지 조언을 하며 회사생활 적응을 돕는다. 회사생활의 노하우 습득을 돕고 바람직한 조직관을 함양하도록 하려는 게 취지이다. 한마디로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아 신입사원은 물론 경력사원까지도 낯선 환경에 쉽게 적응해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행 첫 주, 각 팀의 대리 이상 직원 중 타의 모범이 되는 선배사원이 신입 및 경력 사원의 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 활동비를 지급받은 ‘후견인-피후견인’은 이후 12주간 수행일지 작성, 공동 연구 과제 수행, 독서 감상문 작성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수행하였다. 4주, 6주, 9주차 수요일은 ‘후견인의 날’로 정하여 볼링, 축구 경기 등 취미생활을 함께 즐기며 한층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기도 하였다. 각 조별 활동 내용은 사진으로 남겨 콘테스트를 하고 마지막 주에는 우수 후견인 조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신입사원은 낯선 환경에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고 선배사원은 후배를 이끌며 리더십을 쌓을 수 있는 후견인 제도. 이를 통해 선후배 직원 모두 ‘성우’라는 이름 아래 더욱 돈독해지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 🐶





이것이 바닷물 손맛 아인교!

공명기리팀
김승규DR ♥ 박승태DR



신차기팀 자이언츠!!!

신차품질1팀
강동훈SW ♥ 심형섭DR



선배님 저 뭐하도요 <>



우리팀 사랑합니다~♥

신형섭팀
김의용DR ♥ 심성용DR



지금까지 이런 추억은 없었다. 그는 추억이니까.. 가동원아..

영업관리팀 후견인 : 이관영 대리
피후견인 : 강동일 사원

1
위의 친구인 팀을
몰려와야 하는구나... **우애** 있는 팀...
무엇이든 함께 할 수 있는 팀이...
가장 중요... **우정** 아인

2
위의 친구인 팀을
몰려와야 하는구나... **우애** 있는 팀...
무엇이든 함께 할 수 있는 팀이...
가장 중요... **우정** 아인

3
위의 친구인 팀을
몰려와야 하는구나... **우애** 있는 팀...
무엇이든 함께 할 수 있는 팀이...
가장 중요... **우정** 아인

4
나의 대의성과 책임감!
힘껏 짊어질! **대의성** 키 **책임감**!!

5
정말 멋진 팀이다...
팀의 힘이 대단해!!
고맙습니다... **우정** 아인

6
후원 활동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팀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우아이티배 마라톤 참가

맛스텔링관리팀
강동훈SW ♥ 심형섭DR



사나이들의 대화

아신품질보증팀
강인모SW ♥ 박상성DR



우리 다이어트 예요

신차품질2팀
박영희SW ♥ 조상배DR



전적으로 저를 믿어야 합니다.

품질보증팀
이상민SW ♥ 김희재DR



품질보증팀 권도형SW ♥ 천서정DR

품.보.는. 좋아~ 품.보.는. 최고~

품질보증팀 권도형SW ♥ 천서정DR



근로복지팀 황진우SW ♥ 이종운DR

사랑 제일 맛의 맛을 배야 진정한 성공인



고생했다, 동국아!

원기팀
황동국SW ♥ 정진규DR



적한 전별도

계발1팀 강태훈SW ♥ 이준호DR



우리는 하나! 생산 보진 그룹

직사생산관리팀 강동진SW ♥ 이정택DR



공명기리팀 손지민SW ♥ 김문규DR

승리 패배

우울한 마음은 웃음으로 달인 엔지니어 50명 성공을 위한

신입사원의 특기만 가진 에버리지 30명 손지민 사원

후견인의 날 -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룬 공법기획팀

공법기획팀
후견인 : 이봉혁 대리
피우견인 : 장정호 사원



볼링 치러 가기 전 맛있는 치킨(치킨 맥주) 식사 ^^
(당으로 설탕에서 좋은 맛 많이 해주신 대리님들!)



잘 어울리는 후견인 - 피우견인!!



볼링 처음 친다는 후견인을 위해
자세 잡아주는는 대리님!



한껏 실력 보여주시는 대리님



부족하지만 따라 해보는 나..



마지막으로 즐거워하는 공법기획팀 식구들

공법기획 후견인의 날

공법기획팀
후견인 : 장석봉 과장
피우견인 : 신형준 대리



2019년 상반기/하반기 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볼링 우승을 축하하며
일단 잔액으로 배 채우고 시작!



후견인 팀 이봉혁 대리의
멋진 STRIKE 한방!! ㅋㅋ



결과를 후견인팀의 100%정착 수칙!!
역시 노관할에는 아닐 수 없군..
신/우 조합으로 즐거운 시간이였습니다!!



결과를 축하!!
후견인 팀 VS 피우견인 팀
실력은 역시 좋은 피우견인 조합은 거기



피우견인 팀의 예스 칭찬도 소중!!



성고기 가격인상 안내
성고기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을 전수하는 것이지 맛과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객
선호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맙고 1000원 할인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동규 SW ♥ 이준호 GJ



생선가수2팀
김동우 SW ♥ 주진용 GJ
노가리에 비어!!



공법기획기
김정호 SW ♥ 정석봉 GJ
기대여 함께하는 봄방방 인제!!

컨셉인듯 컨셉아닌 컨셉사진



같이 있으면
재밌잖아?
그저?
어... ㅎㅎ
어!!

품질경영팀
황수현 SW ♥ 이영석 DR

공법기획팀배 볼링 뽐내기

공법기획팀
후견인 : 이봉혁 대리
피우견인 : 양승준 대리



물방이런 이봉혁 대리님과 한방!



볼링 뽐내시는 이봉혁 대리님!



포스트 찍어주는 수승준!



한수 달려주시는 대리님!



볼링이 저승사자는 둥기!



승리의 미소!



승리로 일귀년
저간의 달걀밥
볼링에 열중하느라 사진
올 못찍은 임진호 SW

IT백신팀
김진호 SW ♥ 조성훈 GJ



더 높게 더 빠르게
SWING~
경영기획팀
김서열 SW ♥ 이효성 GJ



더브샷~
개발1팀
원현수 SW ♥ 원성훈 GJ



사외에서 첫 만남!!
제작2팀
김성호 SW ♥ 박희대 GJ



아이~!
경량설계팀
임민수연구원
최승권 책임



생선가수2팀
김노욱 SW ♥ 이효성 GJ
친밀감을 높여주는
수단!



기분 좋은 START!

성우하이텍 축구동호회 'FC PPM'

성우하이텍의 새로운 축구 동호회가 출범을 알렸다.
조립, 가공팀 반원들을 기반으로 모인 FC PPM. 아직 팀
유니폼도 없고 출범 두 달 만에야 정식 경기장에서 뛰어보는
신생 팀이지만 넘치는 에너지만큼은 여느 팀들 못지않다.





☆☆ 창단 2개월 차 신생팀

FC PPM. 먼저 특이한 팀명에 눈길이 간다. Pres(프레스), Production(생산), Maintenance(보전)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으로, 보전팀, 생산팀, 생산관리팀 직원들로 구성되었다는 의미이다. 정식 출범 전 친목 도모 겸 가끔씩 공을 차던 직원들이 열다섯 명 남짓. 2년 정도 팀 없이 시간이 날 때마다 모였다. 그리고 지난 4월, 원년 멤버들은 제대로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고자 마음먹고 팀원을 모아 현재 42명이 함께하는 '팀 FC PPM'을 구성했다.

일과 후 모이는 시간은 보통 5시 반경. 주중에 한 번씩은 꼭 모여 2시간 정도 공을 찬다. 반도 다르고 주/야간 직원들로 구성되다 보니 전체 멤버의 반 정도인 스무 명 남짓한 인원이 모인다. 장소는 보통 본사 옥상의 풋살장. 팀을 나눠 3쿼터 경기를 마치고 나면 온몸이 땀범벅이 된다. 빠른 공수 교대와 활발한 움직임이 특징인 풋살 경기를 주로 하는데, 숨차게 뛰다 보면 기분만은 상쾌하다.

"막 승부욕을 불태우면서 하지는 않아요. 승패에 집착하지 않으니 못해도 웃고, 잘해도 웃죠. 잘하든 못 하든 함께 모여 즐기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동료와 이런 시간을 함께한다는 게 좋습니다."



같이 공을 차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부대끼고
 연습 후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일 외에 나눌 대화거리도 많아졌다.
 한 팀이라는 소속감은 덤, 동료애가 깊어진 것은 물론이다.

서로 다른 우리, '하나'가 되다

지난 두 달여, 팀 출범의 목적대로 타 반 동료들과도
 눈에 띄게 가까워졌다. 그저 오며가며 인사만 하던
 동료에 대해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다. 같이 공을
 차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부대끼고 연습 후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일 외에 나눌 대화거리도 많아졌다.
 한 팀이라는 소속감은 덤, 동료애가 깊어진 것은
 물론이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는 근무 현장으로까지
 이어진다. 조금이라도 더 마음을 쓰고 배려하면서 일의
 능률까지 오른다며 FC PPM 팀원들은 동호회 활동의
 장점을 입 모아 말하였다.

“출범 두 달차의 신생 팀인 만큼 아직은 실력을 키우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대는 있죠. 공을 차다
 보니 꽤 실력이 좋은 멤버들도 눈에 띄는데, 앞으로
 사내 다른 팀들과 경기할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실력을 더 키워가고 싶습니다.”

팀 회장을 맡고 있는 가공1반 김주호 반장은 오늘
 경기를 계기로 향후 야유회 겸 단합회도 갖고 아직
 없는 팀 유니폼도 맞춤 예정이라며 한 팀으로서의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잠깐 인터뷰를 가지는 사이 어느새 약속한 경기 시간
 되었다. 오늘 경기는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팀 창단
 이후 타 팀과 갖는 첫 경기, 풋살 경기장보다 큰 축구
 경기장에서 뛰는 것도 처음이다. 처음 밟아보는 넓은
 그라운드에서 서서 멤버들이 눈을 반짝였다. 물론 실제로
 뛰어보니 만만찮다. 그라운드는 왜 이렇게 넓고 골대는
 또 왜 그렇게 큰지. 연습 삼아 슈팅도 해보는데... 그
 넓은 골대에 한 골을 넣는 것이 쉽지 않다.

오늘 경기, 잘 풀릴까?





짜릿한 첫 승! 이제부터 시작



드디어 시작된 경기. 매주 합을 맞추어왔던 것이 헛되지는지 공을 주고받는 팀원들의 몸놀림이 가볍다. 자연스럽게 초반 공세가 시작된다.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붙이는 FC PPM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경기는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른다. 몸을 던지는 적극적인 수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볼 다툼, 한달음에 경기장을 가로지르는 드리블이 여느 프로들의 경기 못지않다. 빠른 공격 패턴에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응원하던 그때, 그라운드 쪽에서 “와!” 하는 함성이 터져 나온다. 경기 시작 후 5분여 만에 터진 첫 골! 이후에도 적극적인 공격이 이어졌고 “심하게 깨지지만 않으면 만족한다”던 FC PPM은 이날 2 대 1 승리를 거머쥐었다. 같은 동호회 팀원들과의 경기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짜릿함에 저마다의 얼굴에는 흥분이 쉬 가시지 않는다.

윙백을 맡아 공수를 오가며 활약한 설비기술반 윤수영 기장은 동호회 활동이 일상을 바꾸어놓았으며 성우인들의 참여를 적극 추천하였다.

“올해로 회사 입사 13년차인데 동호회 활동 전에는 일이 끝나면 집에 가기가 바빴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할 줄은 몰랐어요. 공을 차는 게 재미있고, 재미를 느끼니 실력도 늘더라고요. 뛰고 나면 피곤한 게 아니라 오히려 몸이 가볍습니다. FC PPM을 통해 힐링합니다.”

함께 즐기며 동료애를 돈독히 하고자 했던 초창기 목적처럼 함께 뛰는 경기 자체를 즐겼던 FC PPM. 기분 좋은 스타트를 끊은 FC PPM의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FC PPM

고문 최노건 부장(생산관리팀) 회장 김주호 반장(가공1반)

부회장 유광규 조장(가공2반) 총무 강동완 반장(설비기술반)





부안 변산에 반하도다

천년고찰 내소사, 아름다운 직소폭포, 크고 웅장한 울금바위를 비롯하여
기묘한 바위와 암벽,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계곡.
해안에는 생명이 살아있는 갯벌과 먼 옛날 지구 대격변의 흔적으로 남은 해식단애가 펼쳐진다.
태고의 신비를 상상케 하는 곳! 부안의 변산반도다.



사진 출처.부안군청홈페이지



내변산, 때 묻지 않은 숲속의 정취

천년고찰 내소사와 직소폭포

일주문을 지나 전나무숲길이 펼쳐진다. 이곳은 드라마 <대장금>의 촬영지로 아름다움을 뽐낸 길이기도 하다. 숲길을 지나 천왕문에 이르면, 633년(백제 무왕 34) 창건했다는 천년고찰 내소사다. 유럽의 대성당 창을 스테인드글라스가 웅장하고 화려하게 장식한다면, 내소사 대웅보전(보물 제291호)은 동양적 소박함과 신비로움을 입은 꽃문양 창살이 일품이다. 해질 무렵, 붉은 태양빛이 천년의 세월을 증명하듯 무더진 꽃문양에 닿으면 신비로운 꽃문양의 암화를 내보인다. 법당 불단 뒤 백의관음보살좌상은 소원을 이루어준다.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268호), 고려동종(보물 제277호), 법화경 절본(보물 제278호)도 내소사가 품은 보물이다. 내소사 옆으로 변산을 올라 관음봉을 넘어 왼쪽 길로 향하면 아찔한 벼랑 위 풍경으로 탈바꿈 한다. 바로 직소폭포다. 설치된 길을 따라 폭포 아래로 내려가 올라다보면 떨어지는 물줄기가 더욱 장관이다. 오른쪽은 와룡소와 가마소를 품에 안은 화양골이다. 마치 큰 용이 지나가며 흔적이라도 남긴 듯 굽이치는 무늬가 인상적이다. 인적 없는 오지의 정취와 어울린다. 특히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의 색채로 갈아입는 마법을 보노라면 변산邊山은 변산變山이 아닌가 싶다.

문의 063-583-7281 입장료 성인: 3,000원/청소년: 1,500원/어린이: 500원



금구원조각공원

1966년 김오성이 개인작품으로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조각공원으로 2003년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사립박물관이다. 100여 점의 작품은 이미지가 서로 연결되어 한편의 연극을 보는 듯하다. 대리석이나 화강암으로 만든 작품이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데, 큰 것은 450cm나 된다. 호랑가시나무 등 많은 수목들과 작품이 어우러진 정취가 독특하다. 아름다운 밤하늘을 보며 별자리를 연구해보는 것은 어떤가. 1991년 민간 최초로 세운 금구원 천문대가 제격이다. 천체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일반인 등 관광객들의 체험관광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문의 063-584-6770 입장료 성인: 2,000원/어린이: 1,000원 홈페이지 www.keumkuwon.org

부안청자박물관

신비한 비색의 강진 청자에 이어, 빼어난 상감무늬의 부안 청자가 천년 세월을 넘어 부활했다. 전북 부안군(扶安郡) 보안면 유천도요지(柳川里陶窯址)(사적 제 69호)는 지난 1993년 지표조사를 시작한 이후 11~14세기 가마터 40여 곳이 확인되었다. 이곳 도요지 옆 옛 유천초등학교 터에 건립된 부안청자박물관. 고려청자 가마와 유천(柳川)·우동(牛東)·진서리(鎭西里)에서 출토된 청자 및 조각들이 진열되며, 고려의 아름다운 상감청자(象嵌靑瓷)도 만나볼 수 있는 곳이다.

문의 063-580-3964 입장료 성인: 3,000원/청소년: 2,000원/어린이: 1,000원

홈페이지 www.buan.go.kr/buancela



영상테마파크

전통사극세트장이다. <태양인 이재마>, <불멸의 이순신> 같은 드라마와 영화 <왕의 남자>, <한반도>, <황진이>, <궁녀> 등의 주요 촬영지다. 전통국궁체험, 조선황실 의상체험, 프레스 플라워(압화), 아로마, 생태체험장, 직접 말을 타고 도는 승마체험장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테마파크 안에는 말과 거위, 꽃사슴이 자라고 있다. 동물원에서나 볼 법한 동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색다른 즐거움이다. 자동차로 불과 5분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부안의 대표적인 관광지 채석강이 있으니 한번 둘러보는 것도 좋겠다.

문의 063-581-0975 입장료 성인 2,000원





외변산, 태고의 신비를 따라 걷다

채석강, 조물주의 예술작품

자연의 대격변과 역겹의 세월에 씻겨온 바위는 깎이고 씻겨 해식단애의 아름다운 절벽을 이루었고, 절벽은 다시 씻겨 동굴을 이루었다. 이렇듯 대자연의 신비와 비밀을 간직한 채석강은 외변산 제일의 경관이다. 중국의 채석강(彩石江)과 그 모습이 흡사해 채석강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썰물 때 드러나는 변산반도 서쪽 끝 격포항과 그 오른쪽 닭이봉(200m) 일대의 층암절벽과 바다 일대를 말한다.

대격변의 시기와 오랜 시간 파도에 깎여 형성된 퇴적암층이 수만 권의 책을 포개놓은 듯, 기암괴석들과 어울려 절경을 자아낸다. 부안 격포리 후박나무군락(천연기념물 제123호)이 있는 등 식생환경이 우수한 곳이다.

채석강은 하루 두 차례 물이 빠지면 들어갈 수 있는데, 간조 때는 물 빠진 퇴적암층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바다생물과 해식동굴의 신비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간조 때 해식동굴에서 바라보는 낙조와 노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

채석강에 얽힌 전설

바다를 관장하는 해신(海神)인 개양할미는 키가 어찌나 큰지 굽이 낮은 신을 신고 바다를 걸어 다녀도 버선조차 젖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곰소 웅덩이에서 발이 빠져 치마까지 젖고 말았대요. 화가 난 개양할미는 치마에 돌을 담아다 곰소를 메워버렸죠. 지금도 깊은 물을 보면 '곰소 웅덩이 속 갈다'라는 속담을 써요.

곰소염전과 슬지제빵소

곰소염전은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천일염지다. 조선시대에는 화염(火鹽, 바닷물을 끓여 만든 소금)을 만들었는데 지금의 염전은 일제강점기 말기에 만들어져 해방 이후부터 천일염을 생산하였다. 소금은 보통 3월 말에서 10월까지 생산되는데 5, 6월에 소금 생산량이 가장 많고 맛도 좋다. 곰소만의 입지 조건상 바닷물에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소금의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곰소 앞바다에서 잡힌 싱싱한 생선을 천일염으로 절여서 만든 젓갈이 그래서 유명하다. 거기다 한국의 유니니사막이라 불릴 정도로 염전에 비친 풍경이 일품이다.

염전 바로 앞에는 유명한 찐빵집 '슬지제빵소'가 있어 간식과 함께 티타임을 즐기며 쉬어갈 수 있다.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운 카페의 주 메뉴는 커피와 생크림 찐빵, 구운 찐빵 등이다. 맛집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특히 아이스크림과 함께 나오는 구운 찐빵은 포장이 안 되니 카페에서 꼭 먹어보자. 2층 테라스에서 염전을 훤히 내려다보는 풍경도 좋다.

그 밖에 변산해수욕장, 고사포해수욕장, 솔섬, 격포항 수산시장,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새만금홍보관, 모항갯벌체험장, 줄포만갯벌생태공원, 누에타운 등 관광, 여행지가 가득하다. 

지역특성★★★★★ 접근성★★★★ 편의시설★★★★

새하얗게 불태웠어... 번아웃증후군

“하루 종일 퇴근 생각만 간절합니다.”, “모두 그만두고 떠나고 싶어요.”
“일을 해도 아무런 성취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 봤다면? 아니, 최근에 자주 이런 생각을 한다면?
별 것 아닌 일로 넘겨도, 무시해서도 안 된다.

1970년대, 미국의 심리 치료사 허버트 프로이덴버거 박사는 간호사들을 치료하다 그들에게서 공통되는 증상을 발견한다. 하나 같이 사명감을 가지고 몇 년을 헌신적으로 일하던 간호사들이 어느 순간 과중한 피로와 압박감을 느끼더니 결국 의욕이 없어지면서 정신적·신체적으로 무기력에 빠진 것이다. 그렇게 좋아했던 자신의 일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심한 경우 직무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허버트 박사는 직업적으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다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듯 무기력한 상황에 이르러 마치 모든 게 불타버린 듯 신체적·정신적으로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는 이런 증상을 '번아웃(Burnout)'이라고 명명하였다.

번아웃증후군은 이미 우리에게 낯선 용어가 아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나 또 출근해야 하는 것이 말할 수 없이 괴로울 때, 예전보다 짜증과 화가 늘고 가슴에 큰 돌덩이를 올려놓은 듯 답답할 때, 불면증과 두통을 달고 살며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증세가 심해질 때... 성우인들 중에도 이런 증상을 느끼는 이들이 적지는 않을 터. 대한민국 직장인의 85퍼센트가 앓고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이 심각한 질환에 대해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허버트 프로이덴버거 박사는 번아웃증후군을 버닝단계, 철수(후퇴)단계, 고립단계, 부적응(행동)단계, 심각단계, 최악의 단계로 나누고 마지막 6단계인 최악의 단계를 당장 치료가 필요한 단계라고 하였다.

번아웃증후군 자가 진단 테스트

- 쉬어도 개운하지가 않다.
- 기억력이 감퇴한다.
- 작은 일에도 짜증을 크게 낸다.
-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 삶이 무미건조하다.
- 일을 끝내도 성취감이 들지 않는다.
- 퇴근할 때쯤에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 녹초가 된다.
-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생각을 하면 한숨이 난다.
- 예전보다 감기 같은 병에 자주 걸린다.
- 매사에 싫증을 잘 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몇 시간을 그냥 보낸다.

질문 중 7개 이상 해당한다면?

지금 당장 개선이 필요하다. 자신의 감정 기복을 다스리기 위해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간절할 때이다. 일에서 한 발 물러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하루의 수면 시간을 늘리거나,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편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작은 시도로도 괜찮다.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작은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번아웃증후군은 결국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당신에게, 다 타버린 몸과 마음이 보내는 구조 요청일 테니. 



해피스쿨 목욕 봉사

공감을 통해

편견

허물어요!

정관의 장애인 거주시설인 '해피스쿨'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이면 성우인들의 발길이 닿는 곳이다. 성우인들은 부족한 일손을 보태려 이곳 거주인들의 목욕을 돕고 있다. 벌써 6년째 계속되는 특별한 인연, 6월 19일 해피스쿨을 찾은 성우인들과 동행하였다.

첫걸음은 늘 의미 깊다. 장애인-비장애인이라는 서로 간 장벽을 허물고 한 발 가까워진 성우인들의 작은 변화처럼.



편견 허물고 '다름'을 알아가는 시간

오늘의 목욕봉사 참가자는 다섯 명. 김동범 책임연구원(선행기술팀), 이학조 기장(시운전반), 박상묵 기사(자재지원 1반), 박성환 사원(생산기술1팀), 이광재 사원(IT혁신팀)이 해피스쿨에 도착하였다. 도착 후에는 가장 먼저 간단한 교육을 받는다. 해피스쿨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하여 인근 대중목욕탕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을 일깨워주는 시간이다.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교육을 잠시 받는데, 프로그램 진행 중 여태껏 단 한 번도 문제가

되었던 적이 없었던 것을 보면 그저 함께 씻고, 눈 맞추고, 살아가는 소박한 일상생활이다.

교육을 받는 동안 생활관에서 거주인 네 사람이 내려왔다. 성우인들은 거주인 개인의 특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었다.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대화를 시도하자 짧은 인사가 돌아오기도, 아무런 반응이 없기도 하다. 그런 모습이 낯설 법도 하지만 친절하게 손을 잡아주고 신발을 신겨주는 성우인들의 손길에는 거리낌이 없다.

친절하게 손을 잡아주고 신발을 신겨주는
성우인들의 손길에는 거리낌이 없다.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로

근처 사우나에서 본격적인 목욕봉사가 진행되었다. 성우인들은 탈의실에서부터 머리를 감기거나 몸을 씻어주는 전 과정을 세세하게 도왔다. 살을 부대끼며 가까이서 톱다 보니 처음의 어색함은 어느새 찾아볼 수 없었다. 거주인들이 대답을 해주지 않아도 침 없이 말을 걸고 상냥하게 돕는 성우인들. 그래서일까. 목욕 후 말끔한 모습으로 기념촬영을 할 때에는 한결 가까워진 듯하다.

목욕 후 다시 해피스쿨로 돌아온 성우인들은 거주인들과 다과 시간을 가졌다. 그러다 작은 소란이 인다. 이제껏 암

전히 따라주던 거주인 중 한 분이 과자를 계속해서 입에 넣기 시작한 것. 뜻밖의 상황에 당황할밖에. 복지사분이 우왕좌왕하는 이광재 사원(IT혁신팀)에게 차분히 설명했다.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다 보니 음식 조절을 못하고 음식이 있으면 욕심껏 입에 넣으려 한다는 것이다. 복지사분의 지시에 곧 순응하는 거주인을 보며, 다음에는 약간의 세심함도 함께 가져오리란 다짐을 해보았다.

한 차례 소란이 정리된 후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날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해피스쿨을 나서는 성우인들의 얼굴

이 처음에 비해 한결 밝다. 짧다면 짧은 시간. 한 번의 봉사가 큰 변화로 이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첫걸음은 늘 의미 깊다. 장애인-비장애인이라는 서로 간 장벽을 허물고 한 발 가까워진 성우인들의 작은 변화처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지만 잘 따라주는 거주인분들이 고맙고 대견했습니다.’, ‘장애인분들을 직접 도와드릴 수 있어 뜻 깊은 하루였습니다.’

MINI INTERVIEW



김상욱 후원홍보팀장



이인석 사회복지사



김동범 선행기술팀 책임연구원

Q. 곁에서 지켜본 봉사자 성우인들은?

지체장애인들을 처음 접하는 만큼 처음엔 다가가 기초차 두려울법한데요. 적극적으로 손을 잡으시고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것도 없이 너무 세심하게 잘 챙겨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Q. 앞으로의 계획

목욕봉사 외에도 자원봉사자들의 손이 필요한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동을 통해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을 펼쳐나가고 싶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보다 많은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Q. 두 번째로 참여했는데, 한 번 더 신청한 이유는?

중증장애인분들은 사회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분들이라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직접 만나보고 이분들은 그저 우리와 조금 다를 뿐이라는 걸 느꼈죠. 그 경험이 좋아 기회가 되면 매년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Q. 목욕봉사를 통해 느낀 점

개인적으로 굿네이버스, 세이브 더 칠드런 등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피스쿨 목욕봉사는 후원 같은 간접적인 활동과 달리 장애인들을 직접 만나 도울 수 있다는 점이 끌렸습니다. 이런 기회를 마련해준 회사에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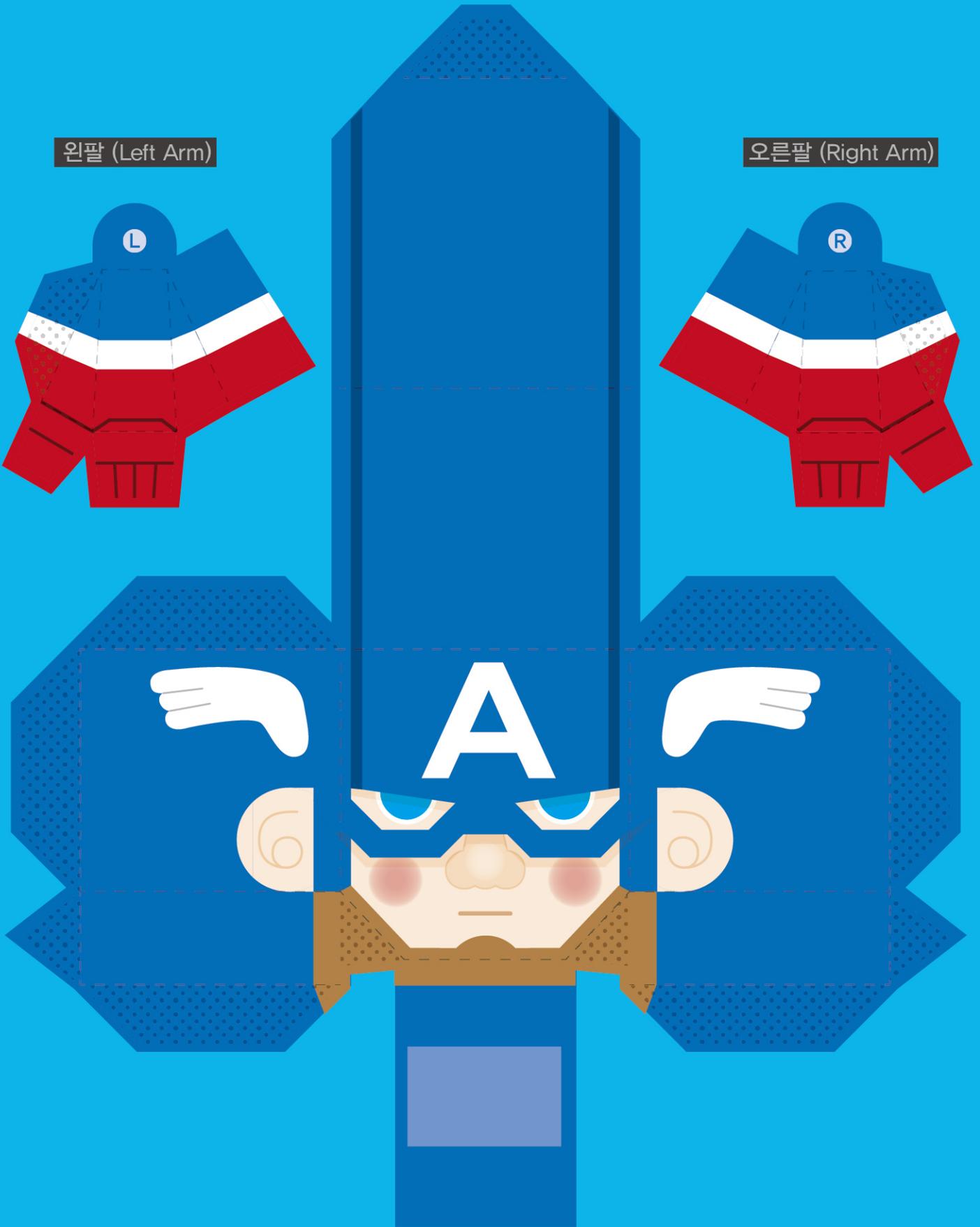
해피스쿨은? 2009년 설립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와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을 통하여 거주인 사회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개별화된 질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우하이텍은 지난 2014년부터 인연을 맺고 매달 한 차례 목욕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

A

머리(H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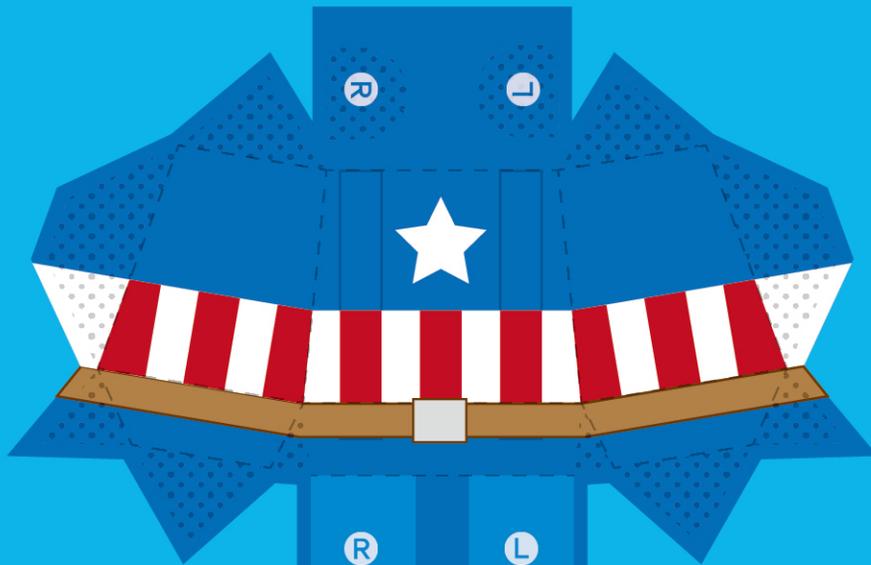
왼팔 (Left Arm)

오른팔 (Right A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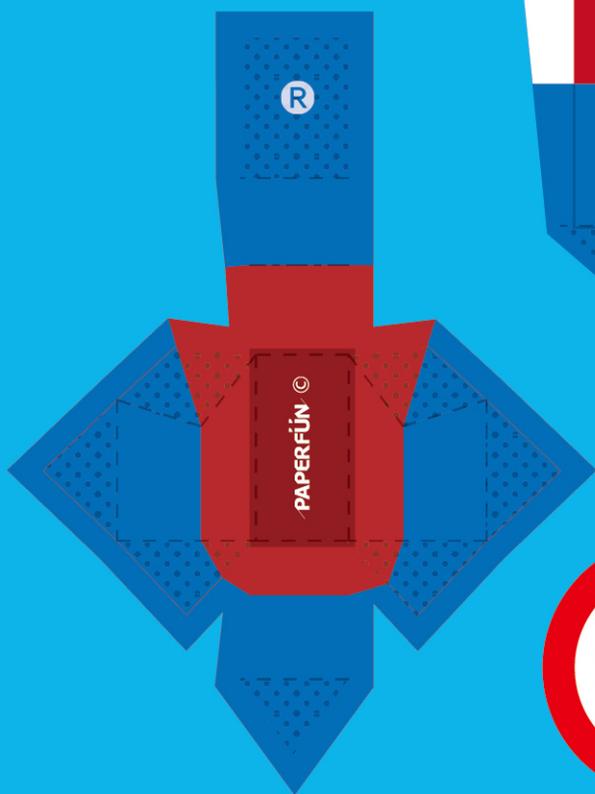


몸통 (Body)



오른다리 (Right Leg)

왼다리 (Left Leg)



방패 (Shield)

손으로 뜯어서 아래 참조사항과 같이 접어주세요.

참조사항 :



산접기



계곡접기



풀칠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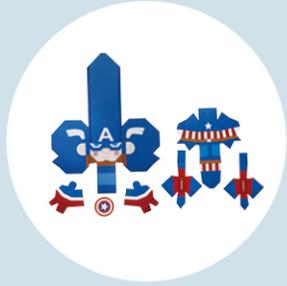
페이퍼토이로 만드는 슈퍼 히어로 III

슈퍼 히어로 만들기 세 번째 주인공 캡틴아메리카!
 자녀들과 함께, 점심시간을 이용해 팀원·반원들과 페이퍼토이를 만들어보자.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에 캡틴아메리카까지 더하여 슈퍼 히어로 컬렉션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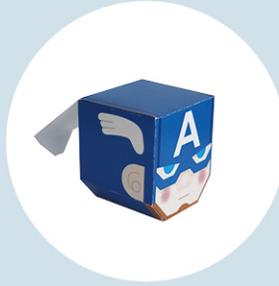
만들기 순서



▶ 준비물: 풀 or 양면테이프



① 선을 따라 얼굴과 몸통, 팔다리를 떼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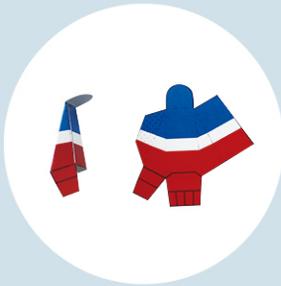
② 캡틴아메리카의 머리 부분을 박스 모양으로 접어 만든다.

TIP 머리 뒷부분은 풀로 붙이지 말고 남겨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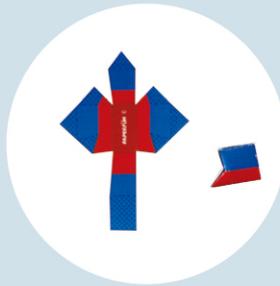


③ 몸통을 만든다.

TIP 이때 몸통 등 부분은 풀로 붙이지 말고 남겨둘 것



④ 팔 부분을 만든다.



⑤ 다리 부분을 만든다.



⑥ 팔 부분을 몸통과 연결한다.



⑦ 몸통과 머리를 풀로 붙여 연결한다.

TIP 이때 등 부분과 머리 부분의 열린 곳을 이용할 것



⑧ 등 부분과 머리 부분 열린 곳을 풀로 붙여준다.



⑨ 다리 부분을 붙인다.



⑩ 방패까지 장착하면, 내 손으로 만드는 캡틴아메리카 완성!



Creative New Technology

첨단소재를 활용한 '차량경량화'

전기차 배터리 팩 개발로 실현하는 '미래형자동차'

라이다와 열화상카메라 기술 개발로 '자율주행차 선도'

성우하이텍의 창조적 신기술이

자동차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국내

(주)성우하이텍

정관공장, 서창공장, R&D센터, 금형공장, 코일센터, 지사공장, 핫스탬핑, 서울사무소, 수원연구소

(주)아산성우하이텍

해외

북경법인, 심양법인, 연태법인, 창주법인, 무석법인, 염성법인, 충칭법인, 인도SHI, 인도SSP,

우즈베키스탄법인, 체코법인, 슬로바키아법인, 러시아법인, 독일WMU, 독일WMU B, 멕시코법인, 미국사무소